

목포 근대역사관 1·2관 공립박물관 등록 추진

옛 일본영사관·동양척식회사
市, 역사교육·관광자원 육성
국가사업 참여 등 활성화 기대

목포시가 목포 근대역사관의 공립박물관 등록을 추진한다.

현재 근대역사관 제1관은 구 일본영사관 건물로 국가사적 289호이며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인 제2관은 전남도 지방기념물 174호로 지정돼 있다.

4일 목포시에 따르면 근대사의 중요한 자료이자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근대역사관의 활성화를 위해 1관과 2관에 대한 전문(공립) 박물관 등록을 추진 중이다.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1항에는 100㎡ 이상의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도난 방지시설을 갖추고 학예사 1명 이상 근무할 경우 박물관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등록처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남도다.

목포시는 공립 박물관으로 지정되면 국가 지원사업 및 박물관협회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근대역사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1관 건물은 일본 영사관, 이사청, 목포부청으로 사용됐으며, 해방 이후에는



목포 근대역사관 제1관 특별전시실에는 1940년대 목포 오거리의 모습을 재현한 축소 모형이 전시돼 있다. 오른쪽은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인 근대역사관 제2관 전경.

목포시청사(1947~1974년), 목포시립도서관(1974~1989년), 목포문화원 등으로 사용됐다. 특히 이곳은 역사적으로나 건축사적으로 목포 지역에 현존하는 최고의 근대 문화유산으로 꼽힌다.

이 전시관에는 1897년부터 1945년 해방 이전까지 근대 목포의 정치, 경제, 문화, 항일운동에 관한 100여점의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특별전시실에는 1940년대 목포 오거리의 모습을 축소 모형으로 재현해 놨다. 또

구 동본원사 목포병원,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구 목포심상소학교 강당, 목포 구청년회관, 호남은행 목포지점, 조선은행 목포지점, 구 동척 목포지점, 중앙동 적산가옥, 목포 양동교회, 북교동 문익수 가옥, 정명여고 구 선교사 사택 등 총 10점의 미니이치가 전시돼 목포에 산재된 주요 근대문화유산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박성범 목포시 문화예술과장은 "목포는 개항을 통해 서구의 근대문화를 받아

들이는 주요 통로였다"면서 "이곳의 전시 유물은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역사교육은 물론 관광자원으로서 큰 가치가 있어 이번에 전문 박물관 등록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근대역사관은 주중에는 100여명, 주말에는 200~300명 정도가 찾고 있으며 일본인 관광객 등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관광 목포' 활성화 6개 사업 중점 추진

목포 9경 발굴·성지순례 관광상품 개발·연인의 거리 조성 등

목포시가 목포 9경 발굴 등 '관광목포 활성화'를 위한 6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4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 9경 발굴, 목포음식 명인 발굴, 남도성지 순례 관광상품 개발,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 9경 발굴은 기존 목포 8경이 어려운 한자여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친밀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 설문 조사를 통해 1경 유달산 풍경, 2경 목포대교 일몰, 3경 갯바위, 4경 춤추는 바다분수, 5경 노적봉, 6경 목포진, 7경 삼학도 이난영공원, 8경 다도해 전경, 9경 사랑의 섬 외달도를 선정했다.

현재 '목포 9경 전국사진공모전'이 진행 중이다. 최우수작은 오는 11월 발표된다. 목포시는 수상작이 선정되는 대로 '목포 구경(九景)가서 구미(九味)당'는 음식 먹어보세'라는 슬로건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목포음식 명인은 지금까지 총 11명을

지정했고, 지정 음식은 12종류다.

또 목포시는 올해 초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종교관련 역사자원을 발굴·활용한 '남도 성지 순례 관광상품'을 개발했다.

목포-영광-신안 등 3개 시·군을 연계한 종교 특화 상품으로 업무협약 체결이후 모두 6차례 걸쳐 1000여명을 유치하는 실적을 거뒀다. 앞서 지난해 29일과 30일에는 수도권 천주교 성직자 등을 대상으로 '천주교 순례길' 관광 상품 개발 팸 투어를 가졌다.

남도 성지순례 관광 상품은 서울 출발→영광 기독교성지 견학→목포시 양동교회→정명여고 구 선교사 사택→북교동 성당→산정동 성당→춤추는 바다분수→주요 관광지(목포 1박)→증도 문준경 선교지→서울 도착 코스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춤추는 바다분수가 있는 평화광장 일대를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로 명명하고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연인의 거리'는 갯바위 달맞이 공원~



목포 평화광장 연인의 거리에 설치될 포토 존 전곡에서 이주인씨가 응모한 'Love Gate(러브 게이트)'라는 작품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평화의 구름다리까지 1.2km구간이다. 청년·연인·가족단위 관광객 등을 타겟으로 평화광장 주변에 밀집된 상권을 브랜드화하고, 독특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명소로 변모시키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를 위해 평화광장 원형무대 주변에 이색적인 '연인의 거리 포토 존'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해 19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포토 존 디자인 공모를 실시했다.

지난달 25일 심사 결과, 이주인(31)씨가 응모한 'Love Gate(러브 게이트)'라는 작품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목포바다를 향해 열린 Gate를 통과하면 하트 모양인 프레임에 목포바다, 연인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작품이다.

우수상에는 이동진(32)씨의 '목포 세레나데'와 이지현(20)씨의 '사랑을 이어주는 구작고' 등 2명이, 장려상은 조해철(38)씨의 '나지와 사랑의 만남', 박숙현(32)씨의 '연인! 커피와 사랑에 빠지다' 등 2명이 각각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 입상한 포토 존을 비롯해 사랑의 자물쇠 존을 설치한 후 오는 10월 관광주간을 맞아 '연인의 거리' 선포식과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6000억원대 목포시금고 유치 경쟁 치열

운영 금융기관 2곳으로 줄여

목포시 금고 약정기간이 올 연말로 다가오면서 차기 시 금고를 유치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뜨겁다.

특히 이번에는 그동안 3개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던 금고가 2곳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물밑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을 공개 경쟁체제로 변경한 때 따른 후속조치로 2개 금융기관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고약정기간 만료(12월 31일) 3개월 전까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함에 따라 목포시 금고 지정 계획 공고를 5일자로 내고, 오는 10월 12일 심사할 예정이다.

시 금고 유치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항목별 평가방법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는 오는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제안서 접수 마감은 10월 7일까지다.

목포시금고는 관련 조례에 따라 3년씩 맡게 되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등으로 나누어 제1금고인 주 금고는 일반회계 및 통합관리금고, 제2금고인 부 금고는 특별회계와 기타 기금을 맡아 운영한다.

지금까지 제1금고는 기업은행, 제2와 3금고는 농협과 광주은행이 각각 맡아 운영해 왔으며, 차기 시금고를 맡는 금융기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이번 시금고 선정에는 기존 3개 금융기관 중 최소 1곳이 탈락하게 돼 있는데다 시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등에 따라 금융기관별 유·불리가 적지 않은 만큼 벌써부터 '수성'과 '진입'을 앞둔 금융기관 간 격돌이 치열해지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2년 연속 최고상 영예

국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품질분임조 국가대표인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국제 대회에서 2년 연속 최고의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박종호)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41회 국제품질분임조경진대회(ICQCC, International Convention on Quality Control Circles) 공공부문에서 출전해 이 대회 최고의 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40회 국제품질분임조경진대회 공공부문에서도 대회 최고의 상인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영산강사업단은 '수로시설물 친환경 공법개선을 부책임수 감소'를 주제



로 공공부문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금까지 영산강사업단은 지난해 2001년부터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참가해 총 10회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박종호 단장은 "앞으로도 전 직원이 지속적인 기술혁신 노력을 통해 최우수 품질확보의 선두주자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최후림 목포시의원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 공동대표에

목포시의회 최후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전국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 공동 대표에 선임됐다.

또 새누리당 공동 대표로는 김명숙 원주시의원 의원, 국민의당은 이영순 광주광역시의원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전국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는 성평등 및 생활과 밀착된 지역현안을 개발해 정책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과 정당을 초월해 전국 지방의회 여성의원 80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네트워크는 지난 2일과

3일 구리시에서 하반기 정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총-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